



## 세계 주류시장 동향

# 스페인

스페인 주류시장은 타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음주문화의 변화로 인해 침체에 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GDP가 전년대비 4% 가량 하락하면서 주류 소비가 감소하였다.

2009년 스페인의 실업률은 20%에 달했으며,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이 부진하면서 업소용 주류의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스페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업소용 주류의 판매가 많은 편으로 총 주류판매의 60% 가량을 업소용이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업소용 주류판매는 전년에 비해 약 10% 가량 줄었으며, 2010년에 들어서는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며 소폭 증가(1.6%)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업소용 판매가 줄어드는 대신 가정용 주류의 판매는 소폭 증가추세에 있다. GDP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호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바에서 한잔에 10달러 이상을 주고 한잔을 술을 마시느니 차라리 Mercadona, Carrefour와 같은 대형 슈퍼체인의 자체 저가 증류주 제품(700ml당 8.2달러 수준) 등을 구입하여 가정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스페인 고유 문화인 보테온(Botellon : 길거리에서 술 마시기를 의미하며, 스페인에는 많은 사람들이 밤에 바닷가, 공원, 광장 등에 모여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음)을 통해 많은 주류가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 증류주(Spirits) 과거 20년전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증류주 소비는 80% 이상이 업소용으로 소비되었으며, 특히 11시 이후 늦은 시간의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시에스타(이른 오후에 자는 낮잠 풍습), 장시간의 점심문화와 함께 늦은 시간의 음주와 같은 스페인의 음주문화도 많이 변화되었다. 스페인의 연간 증류주 소비량은 2009년 2,582만 상자(1상자=9리터)를 기록했으며 2005년 3,044만 상자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증류주 종류별로 보면 스페인에서는 스카치 위스키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그 뒤를 리큐르, 브랜디 등이 잇고 있다. 스페인의 증류주 소비감소 추세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증가한 증류주는 다크럼(화이트럼, 골드럼에 비해 오랜 기간 숙성을 거친 림으로 강한 맛과 향을 가짐)이 유일하며 그나마도 소비증가율이 연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페인 다크럼 시장에서는 Maxxium의 'Brugal' 이 21%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스페인 증류주 종류별 소비 현황

단위 : 백만 상자(1상자=9리터)

종 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08-09)
<b>위스키</b>	<b>10.38</b>	<b>10.29</b>	<b>9.90</b>	<b>9.70</b>	<b>8.88</b>	<b>8.24</b>	<b>-7.2%</b>
스페니시 위스키	2.15	2.08	2.01	1.96	1.85	1.73	-6.2%
스카치 위스키	7.93	7.85	7.50	7.35	6.65	6.15	-7.5%
기타 수입위스키	0.30	0.36	0.39	0.39	0.38	0.36	-5.3%
<b>화이트 스피릿</b>	<b>7.13</b>	<b>7.85</b>	<b>8.00</b>	<b>8.29</b>	<b>7.72</b>	<b>7.10</b>	<b>-8.0%</b>
진	2.89	3.40	3.45	3.40	3.13	2.86	-8.5%
럼	2.60	2.65	2.65	2.60	2.42	2.24	-7.2%
보드카	1.25	1.28	1.34	1.34	1.24	1.14	-7.9%
데킬라	0.39	0.52	0.56	0.95	0.94	0.86	-8.3%
<b>기타증류주</b>	<b>12.09</b>	<b>12.30</b>	<b>12.33</b>	<b>12.13</b>	<b>11.35</b>	<b>10.50</b>	<b>-7.5%</b>
리큐르	4.49	4.60	4.65	4.63	4.35	4.05	-6.9%
브랜디	4.70	4.75	4.73	4.63	4.30	3.95	-8.1%
기타	2.90	2.95	2.95	2.88	2.70	2.50	-7.4%
<b>증류주 합계</b>	<b>29.59</b>	<b>30.44</b>	<b>30.23</b>	<b>30.12</b>	<b>27.94</b>	<b>25.84</b>	<b>-7.5%</b>

※ 자료 : Impact Databank

스페인 증류주 시장 1위인 스카치위스키 중에서는 디아지오의 'J&B' 와 페르노리카의 '발렌타인' 이 각각 29%, 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두 제품이 스카치위스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Dewar's', 'Cutty Sark'이 잇고 있다. 세계 1위 스카치위스키인 다이지의오의 '조니워커'는 5위에 올라있다.

### 2009 상위 5개 스카치위스키 제품 (스페인)

단위 : 천상자 (1상자=9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7	2008	2009	07-08	08-09
1	J&B	Diageo	2,350	1,950	1,775	-17.0%	-9.0%
2	Ballantine's	Pernod Ricard	1,750	1,625	1,500	-7.0%	-8.0%
3	Dewar's	Bacardi-Martini	725	700	700	-3.0%	-0.5%
4	Cutty Sark	Edrington Group	650	600	575	-7.5%	-4.0%
5	Johnnie Walker Red	Diageo	475	450	425	-5.5%	-5.0%
상위5개 제품 소계			5,945	5,325	4,975	-10.4%	-6.7%
기타제품			1,405	1,325	1,180	-5.6%	-11.0%
총 계			7,350	6,650	6,150	-9.5%	-7.5%

※ 자료 : Impact Databank

■ 와인(Wine) 세계 3위 와인생산국이자 세계 7위 와인소비국가인 스페인에서는 연간 약 40억 리터 가량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10억 리터 이상의 와인이 스페인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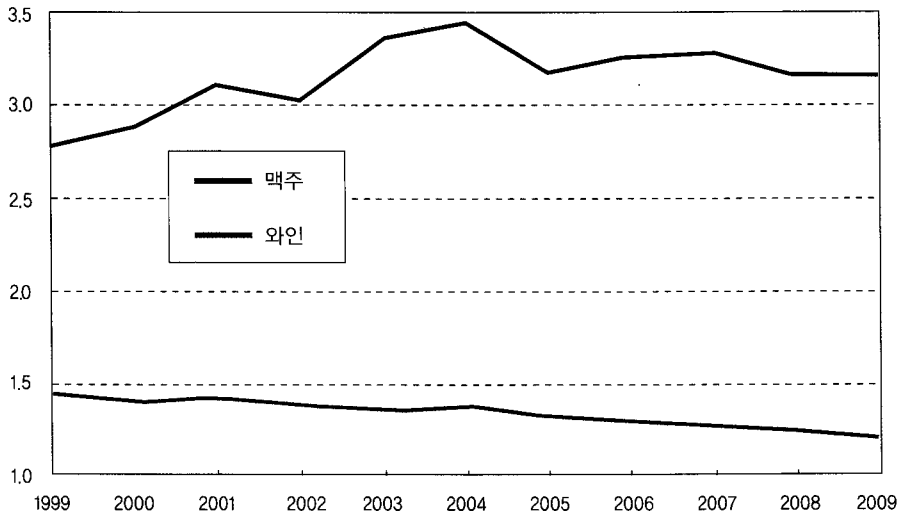
그러나 스페인의 와인소비는 200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0년 14억 리터 수준이던 연간 와인소비량은 2009년에 들어 12억 리터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와인을 선호하고 있으며, 업소에서 마시기보다는 가정에서의 소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스페인 와이너리들은 저가의 보편적인 와인을 대량 제조하고 있으며, 스페인 1위 와이너리인 J Garcia-Carrion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회사의 대표제품인 'Don Simon'은 지난해 28%의 판매증가를 기록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주요 도시들 위주로 와인바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Bodegas Torres마 Gonzalez Byass와 같은 주요 와이너리들은 직접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다.

■ 맥주(Beer) 스페인 주류시장의 전체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맥주소비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스페인은 세계 9위 맥주소비국이자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은 유럽 4위 맥주소비국이며 연 33억 리터 가량의 맥주가 소비되고 있다.

## 스페인 맥주 및 와인 소비량 변화 (1999-2009)

단위 : 10억 리터



※ 자료 : Impact Databank

스페인 맥주시장이 소비량에서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매출 부분에서는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저가의 맥주를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및 외국산 수입맥주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Cruzcampo'와 'Heineken', 'Amstel'을 앞세운 하이네켄과, Mahou-San Miguel 그리고 Damm이 맥주시장을 이끌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맥주 역시 와인, 증류주와 마찬가지로 업소용 판매는 줄고 있는 반면 가정용의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주류산업 관계자들은 스페인 경제위기와 인구고령화, 늦은 시간의 업소에서의 음주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음주문화와 현상에 맞춘 주류업계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Impact' 지 2010년 12월호